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 코로나19 상황에서 9월 28일 오전 7시 CTS TV 등 방송 중계



▲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조찬기도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회장 김진표 장로

회장 두상달 장로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9월 28일 오전 7시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역대하7:14) 주제로 ‘온라인 기도회’로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에서 진행된다.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조찬기도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회장 김진표 의원(국회조찬기도회장)과 준비위원장 두상달 장로(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명예회장 겸 순회대사 정근모 장로(전 과학기술처 장관), (사)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주대준 장로, 부회장 서광수 장로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원장 두상달 장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이번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예배가 아닌 기도회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생계형 가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중소 상공인들도 부도 상황 앞에서 피가 마른다고 한다. 이러한 때 열리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두 장로는 특히 “지난 3월 개최하려

고 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기도회를 연기하면서 당초 개최 장소였던 코엑스에서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로 옮겨서 400명 규모로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2단계 상황이고, 더욱이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방역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도회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회장 김진표 장로는 “국가조찬기도회 설립은 예정합동 총회장과 한교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이승희 목사(대구 반야월교회)가 맡고, 축도는 예정합동 총회장 겸 한교총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맡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경봉독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국민의힘 이재의 의원이 각각 구약과 신약을 낭독한다.”며 “특별기도는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윤보환 감독, 김양재 목사, 이봉관 장로 등이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준비 상황을 설명한 주대준 장로는 “온라인 기도회는 새에덴교회에서 방송을 제작 송출한다.”며 “새에덴교회는

6.25해외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 보은예배를 줌(ZOOM) 화상으로 초청해 진행했고, 지금도 주일예배 때 성도들을 화상으로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전국과 해외 교계 대표들을 화상으로 초청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근모 장로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빌리그레함 목사의 제안으로 1955년 워싱턴 메이플 라워호텔에서 시작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립을 했고, CCC 설립자 빌 브라잇 박사가 조직과 준비를 했다.”며 “한국은 빌 브라잇 박사의 친구이자 한국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의 기획과 제안으로 1966년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준곤 목사는 1965년 2월 22일 김종필, 김영삼, 정일형, 박현숙 의원 등 20여 명의 기독교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조찬기도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1966년 3월 8일 구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여야 기독교

회의원과 정관계, 재계,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두상달 장로는 “저는 대학시절 CCC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김준곤 목사님을 만나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민족 복음화의 비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운동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헌신해왔다.”고 말했다.

두 장로는 “김준곤 목사님은 동서화합운동과 엑스포로 74대회를 개최하면서 민족화합과 민족복음화운동을 주도하셨다.”며 “만약 김준곤 목사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여야를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담부하셨을 것 같다. 이번 기도회에서 우리의 못다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묵념아 울면서 국내와 해외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모 장로는 “국가조찬기도회는 김준곤 목사님의 기획 주도로 최태섭

장로, 김인득 장로, 방송원 대법관, 유상근 장로, 김일환 장관 등 평신도 지도자들이 매주 모여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다.”며 “앞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조찬기도회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2003년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상설화 되기 전까지는 국회조찬기도회와 한국기독교선언위원회(CBMC)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를 맡았었다.

제52회 온라인 조찬기도회는 CTS TV를 비롯해 5개 기독교 방송사에서 방영을 한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로 진행되는 만큼 장애인, 농어촌 및 낙도지역 목회자 등 전국적으로는 물론 해외 한인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공유하며, 각 대학, 교회, 복음단체 청년들이 동참하는 범국민적 조찬기도회가 되도록 신문, 방송 및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철영 뉴스파워 제목)

대한예수교
장로회

웨신총회 제 105회 정기총회 공고

총 회장

박정균 목사
반성교회

주제 : “목회자의 행복과 웨신총회”(신 33:29)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제3부총회장	제4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
정순옥 목사 미래선교회	김헌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마순택 목사 사랑하는교회	성용구 목사 송석교회	이준영 목사 낙타방송	황봉기 목사 사랑제일교회	이태균 목사 나누리교회	김복래 목사 꿈과희망교회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
푸른송교회

웨신총회의 자랑
본 교단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모토로 성경 중심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010-8476-5282 / 총회장 박정균 목사(신학박사), 총무 이준영 목사 010-6878-1324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 오후 2:00
장소 : 대전아름다운기도원(원장 김대정 목사)
주소 : 충남 공주시 반포동 사봉길 106-3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302호)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한국교회 비상사태]

우리교회 십자가탑 안전한가?



▲복념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션코리아 이주대 장로, 이 장로는 북한에서도 보일수 있도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통일 십자가를 제작하기도 한 십자가탑 전문가다.

교회의 십자가탑은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주목하여, 그 영혼이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십자가탑은 중세기 고딕 교회 양식에서 유래하였다. 십자가탑 위에는 보통 십자가를 달아 멀리서도 잘 보이며,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십자가탑에 종을 달아 종소리를 울려 성도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기능도 하였다.

한국 최초의 십자가탑은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세워졌던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의 종탑이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해방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자유시련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수의 증가와 함께 종탑 또한 더욱 발전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

건물 위에 직접 십자가 또는 탑을 설치하는 '종각'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십자가탑은 목재로 골조를 세우고 함석으로 마감하는 방식이었는데, 교회를 표시하는 정도로 색상과 형태면에서는 다소 한정했다.

▲최근에 경북, 경남, 부산지역 등 십자가탑이 강풍에 못 이겨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의외로 빈번하다.

1980~90년대까지는 철구조물로 기초를 세운 후, 동판, 스텐, 알루미늄, 칼라판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의 십자가탑들이 많이 세워졌다. 이때부터 십자가탑 외부 마감재 위에 문자글씨로 교회 이름을 부착하여 교회를 알리는 간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십자가탑 속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종의 역할을 하여 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능도 담당했다. 십자가 부분에는 네온을 설

치함으로서 야간에 교회를 알렸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방향하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는 생명의 불빛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십자가탑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대형화와 더불어 교회건축은 초현대식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십자가탑도 현대식 건물에 맞게 바뀌게 되었다. 이전의 십자가탑은 교회건물이나 주변 환경 등과 상관없이 소재, 색상, 디자인 면에서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높이만 달리 세워져 일반 간판을 대신하여 교회위치를 알리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 및 십자가탑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십자가탑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가장 일반적이었던 팔각형 및 사각모양의 십자가탑 형태에서 파이프 소재로 사각 또는 원형으로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파이프 탑의 등장이 2000년대 십자가탑의 기본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신소재를 사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십자가탑이 개발, 시공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각 교회건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단순한 형태가 아닌 조형물과 결합된 독특한 십자가탑들이 많은 등장하였다. 예전에는 십자가탑이 교회 위치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에 반해 현

대에는 개성적인 교회홍보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결합하여 예술성이 합쳐진 형태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교회 십자가탑 중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30년 전까지(초기교회) 시공된 대부분의 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재, 함석, 철구조물(1차 형강)로 시공되었으므로 자재가 노후 및 부식되었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에 노출 돼 있는 위험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부터 2,30년 전에 시공된 십자가탑은 소재 및 디자인이 발전된 것에 반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경우가 많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시공된 십자가탑은 새로운 형태 및 신소재로 시공되어 예전과 비교해 높이와 하중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비해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계속되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태풍,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 태풍으로 발생한 십자가탑 붕괴사고는 대부분 관리소홀 때문이거나 전문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가 시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고 교회안전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재인식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광고물 및 시설물에 대한 법이 강화됐다.



▲최근에 경북, 경남, 부산지역 등 십자가탑이 강풍에 못 이겨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의외로 빈번하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73조에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방루·장식탑·옥탑 등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이면 12미터 까지의 건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6조(2,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 - 6월에 1회 이상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교회는 기존에 세워졌던 십자가탑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앞으로는 십자가탑을 세우기에 앞서 행정기관에 먼저 신고 및 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에 태풍으로 발생한 십자가탑 붕괴사고는 대부분 관리소홀 때문이거나 전문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가 시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고 교회안전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재인식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광고물 및 시설물에 대한 법이 강화됐다.

십자가탑을 세울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공사발주를 내릴 때 사고와 관련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탑 시공 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고 철저히 관리

하는 것이다.

종탐연구소 미션코리아 대표 이주대 장로
대표전화 02-2213-4258 FAX. 02-2213-4259. H.P 010-2351-6771
사무실 : 03126 서율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공 장 : 12190 경기도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80번길 94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허장범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i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5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399 by AZH, 지파운데이션에 미혼모를 위한 여성의류 및 마스크 기부”

(지난 10일, 399 by AZH가 지파운데이션에 미혼모를 위한 의류와 마스크를 전달했다.)

지난 10일, 청담동 프리미엄헤어살롱 399 by AZH(대표원장 강지혜)는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에 미혼모를 위한 여성의류 450여 벌과 마스크

2,000개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혼모들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399 by AZH의 강지혜 대표원장은 “최근 출산을 통해서 엄마가 되어보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고,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해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혼모를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파운데이션 박충관 대표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는 미혼모를 위해 399 by AZH의 관심과 물품 기부



에 감사드립니다”며, “지파운데이션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물품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파운데이션은 2016년 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제개발협력NGO이며, 국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독거노인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보건의료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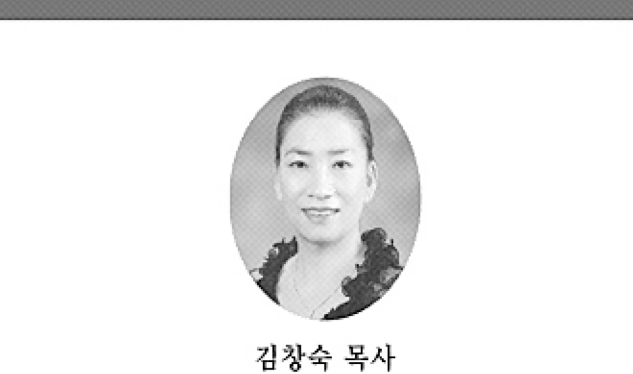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일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의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2020 풍어 전도와 선교하는 한 해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김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임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사)기독교국제선교협 주관으로 ‘서사라 목사 저서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미신학포럼 10일과 11일, 서울 기독교회관 개최
긍정적인 검증으로 이목이 집중



천국과 지옥의 지속적인 체계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영의 간증을 전하는 서사라(사라) 목사(미 LA 주님의사 랑교회)의 저서들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사기독교국제선교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8월 10~11일 양일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신학포럼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수 신학자들이 대거 발제자로 나서 서 목사 저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연구 결과를 전했다.

그간 발간하는 책 마다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며, 미주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아온 서사라 목사였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연구나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공신 포럼은 목사라, 그의 저서에 대한 공신력을 갖춘 사실상의 첫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강연자로 나선 권호덕 교수(전 백석대 교수) 외에도, 조상열 박사(전 고려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예영수 박사(전 한신대 신대원장), 서영균 박사(전 웨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홍용표 박사(전 서울한영대 교수), 서요한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 이재범 교수(전 예망대학원대학교 총장대행), 엘머 레이 마스터즈 박사(네시머대교 명예총장), 서진경 박사(예장성교 증경총회장) 등이 발제자로 함께했다.

“교회의 신학은 논쟁을 통해 확립” 본
격적인 포럼에 앞서 ‘기독교 신학자의 임
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권호덕 교
수는 서 목사의 저서들이 아직 신학적 교

리로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들로 신학적으로 매우 연구·탐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특정한 편견이나 억측으로 공정한 연구를 그려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목사 저서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발제를 주문했다.

특히 신학은 애초부터 해답을 놓고 시작한 것이 아닌 논쟁을 통해 방향을 찾아왔음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교회와 신학은 한꺼번에 다 이뤄지지 않았다. 예수가 하나님이사신지에 대한 물음인 ‘기독론’으로 시작해, 삼위일체, 구속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까지 다양한 논쟁 속에서 확립되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 말론이다.

권 교수는 언제부터인지 신학계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를 금기하거나, 심지어 어거스팀의 무전년설에 비해 전전년설을 이단시 하기도,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신학자는 교회의 모든 사건과 문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주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놓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웠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진리를 변증하는 일을 회피한다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다”면서 “신학자란 무자비할 정도로 모든 문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목사 저서에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로 확정되지 않는 주제는 연구대상으로 삼아볼 필

요가 있다.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이단 괴수라는 정죄를 받았을 때,
그가 자기주장을 끝까지 변호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포럼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주
제를 포럼에서 다루는 것만으로 큰 의의
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사라 목사, 신학의 새 시도이자 새 관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상열 교수는 “하와의 회개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에서 서사라 목사의 하와의 지옥설에 대해 고찰했다. 조 교수는 “서사라 목사는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한 번 더 지옥에서 그들을 목격함으로써 완전히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면서 “하와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있지만, 원방의 마귀를 품은 채 살았다면 그의 삶은 죽을 이후 천국의 삶으로 연장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영생과 연결되는 고리임을 이해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체험에 대해 발제한 예영수 목사는 “개인의 간증으로, 결코 논란이나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명 ‘성 밖’의 개념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예 목사는 “성 목사는 성 밖은 예루살렘 성의 바깥 아무런 곳으로 이 장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천국



에 속한 장소이며, 지옥과는 다른 장소라고 한다”며 또한 성경학자들은 거의 모두 성 밖은 지옥이라고 보고 있으나 엘우드 스코트는 또한 이곳을 낙원에 속한 장소라고 보았으므로 각각 그 묘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결코 서 목사의 간증만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예 목사는 “사람들이 비전으로 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은 개인의 간증에 불과하다. 그 간증을 교리화하거나 신학적 학설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근 목사는 서사와 목사를 매우 영성있고 능력있는 개혁주의 목회자로 평가했다. 서영근 목사는 “그는 그의 작품 총 8권을 집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의 거울에 철저히 투영했다.”

그의 작품을 대하는 순간 간증수기인 지, 성경말씀을 3차원 입방체적으로 주석하는 것인지 매우 신선하고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의 작품을 읽으며, 누구도 성경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 가운데 있는 논리와 사실을 바로 연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개혁신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의 체현 중 금궁증을 문단식으로 확인, 이를 책으로 저술한 서 목사의 방식에 대해 "신학 방법의 새로운 시도이며, 새 관점"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홍유표 박사는 ‘서사라 목사의 성 안, 성 밖의 고찰에 대해’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평가했는데, 전전년설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서사라 목사의 주장을 설명했다. 서요한 박사는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먼저 그는 4가지 성경 해석원리를 설명하고 여러 종교들의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고 또 다른 30여명의 천국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에 비해 서목사의 간증이 탁월하게 다름과 신계명의 관점에서 서사라 목

사가 지옥을 본 내용을 분석했다. 그 수많은 목격담을 십계명이라는 시각으로 매우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서목사가 본 지옥의 형벌을 77가지로 분석하고 십계명과 연관시켜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만들었다.

서사와 목사의 저서에 대한 신학 포럼 이틀째 날에는 4명의 발제자가 논문을 발제했다. 권호정 교수는 '서사와 목사의 7년 환난기에 대해' 발제했는데, 7년 환난기는 70이레의 마지막 환한 것으로서 적그리스도, 두 왕의 여자 등에 대한 서목 성경본문에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목사가 짐승처럼이라는 것을 의사로서 매우 위험을 설명했다는 점은 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도

한 이례에 대한 것으로서 적그리스도, 두 증인, 첫부활, 광야의 여자 등에 대한 서목사의 해석이 성경본문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서목사가 집중의 표가 베리침이라는 것을 의사로서 매우 자שה 그 위험을 설명했다는 점은 누구든지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서목사의 주장은 많은 점에서 독일 보수 신학자들 클리포드, 카일, 루폴드 그리고 주석가 이삼근 박사와 레온 우드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서목사의 설명은 성도들에게 천국가는데 필요한 상당히 구체적인 안내서를 제공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한다. 또 권교수는 서목사가 어떤 학설에 의지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해석으로 서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존 천년기설들이 교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범 박사는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이 천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는데 그는 먼저 천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설명한 다음,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서사라 목사의 천국관이 천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의 천교열매로 증명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는 서사라 목사가 바울의 소명과 비교하며 부르심을 받은 이후국내외에서 선교활동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을까 주체적으로 서술했다. 인도와 아프리카 벨리즈 등에서 수천명의 지도자를 양성함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서사와 목사가 '주님의사랑교회'와 '세사람영성훈련원', 그리고 '세계선교센터'를 창립하여 목회와 선교를 동시에 협력하는 역동적이고, 이상적인 선교적 교회로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매우 평가하며 계속 성공적인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엘머 레이 마스터즈 박사는 '서사와 목사의 하나님의 인에 대한 신학적 고찰'에서 서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인"을 설명하면서 대한반은 마지막 날 이레 가운데 후삼년과도 관계하며 인을 맞는 144,000이 무었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 인을 받음으로 성취되는 107가지를 지적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는 휴거문제와 베리친 문제에 있어 서사라 목사의 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했다.

서진경 박사는 '저서라 목사 저서에 나타난 크리스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서목사가 언급한 세 가지 곧 1) 양심에 회인을 맞아 계속 범죄하는 자, 2) 성령 행방지를 밝히지 않는 자, 3) 집안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외식하는 교인들이 범한 죄로 지옥에 간 자들에 대한 서목사의 체면을 열거하며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도록 권고했다.

이들간 열린 포럼에서 대부분의 발제자들은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충실히 연구하여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체환과 성경해석이 성경에 근거함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로 수렴되는 것으로 긍정 평가되고 있다.

신학포럼에 앞서 설교에 나선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는 “믿음에 중요한 것은 영의 감동이다.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기도 자체가 체험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이 기도 속에 영적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한편, 서사와 묵사는 이화여대와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의대 생물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서 묵사는 미국 딸보 신학대학을 입학해, 미 크리스천 처치(디사이) 플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현재는 미 LA에 위치한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원장과, 한국복음화운동본부 해외선교총재, 그리고 남가주 한인목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천국과 지옥 간증기 1, 2 △성경원 제1권~창세기 △성경원 제2권~모세관 △성경원 제3권~계시록의 이해 △크리올 등. 그밖의 인 △영호수아와 사시기 등이 있다.

또한 한미신학포럼에 교계 기자들의 열
띤 취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저스타임스
(The Jesus Times), CJTN tv 대표 정기남
목사는 서사와 목사를 본사 수석상임이사
로 2019년 9월 1일에 추대되었기에 국제
PRESS 증을 전달했다.

A3 컬러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70원
↓
170만원

(2019년 기록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셋트에서 주보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현금통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4개

VS

52개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드립니다.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영광기업**
주식회사
Glory Enterprise Co., Ltd.

TEL. 1588-0691 서울시 중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3651-8572, 010-5779-0691 인건공작: (계양구청 앞) 032-551-4114

●영광기업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교회에●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덤핑가격으로 드립니다.




[특허상품] LED십자가!
 2020년도 교회 기념품, 선물용, 심방용, 임직용으로추천!
 반석위에 십자가 대량/소량 판매중!

경기가 안좋으니 좋은제품을 덤핑가격으로 구입하세요.

- 제품이 비싸고 못팔아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 원가에 반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8만개(10만개 중 2만개 판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가격은 39,000원 /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15,000원 / 인터넷에서는 10,000원 (*택배비별도)
 이 제품을 박스단위로 5,000원씩 (택배비포함)드리오니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장로 ☎010-5779-0691 ☎010-3651-8572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靑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9월이 오면 무더위가 끝나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나타나며, 가을 과일이 익기 시작한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秋夕)이 대부분 9월에 속해 있다. 올해는 10월 1일이 추석이지만, 방역 당국은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기간(9월30일~10월4일) 가급적 고향 방문과 성묘(省墓)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9월이 되면, 미국 남배우 록 허드슨(Rock Hudson, 1925~1985)과 이탈리아 여배우 지나 롤로브리자다(Gina Lollobrigida, 1927년생) 주연의 영화(1961년 개봉) 'Come September'가 생각나고, 안도현 시인의 아름다운 시 '9월이 오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9월 4일은 콜레스테롤의 날(Cholesterol Day)이다.

안도현 시인의 '9월이 오면'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대/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머물어 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려/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대 강둑 위로/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요즘 우리 사회는 내편과 내편으로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내편 합법(合法), 내편 불법(不法)'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새들은 좌우 날개, 좌익(左翼)과 우익(右翼)이 조화를 맞추어야 멀리 날 수 있다. 이에 우리 사회도 진보(左派)와 보수(右派)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야 한다. 9월의 강물같이...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와 같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韓國脂質動脈硬化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KSoLA)는 국민들에게 콜레스테롤에 대한 올바른 정보(敍石)를 알리고 적절한 콜레스테롤 관리를 강조하고자 2005년에 매년 9월 4일을 '콜레스테롤의 날(Cholesterol Day)'로 제정했으며, 2020년 16회를 맞이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정확히 알아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콜레스테롤(cholesterol)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화학자 폴그로아가 실험실에서 사람의 담석(膽石)을 알코올에 녹이면서 처음 분리했으며, 지질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이 담석의 성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스어로 'chole'는 담즙(膽汁), 'steroes'는 고체(固體)이며, 'ol'은 알코올을 뜻해서 'cholesterol'이라고 부르게 됐다.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간(肝)에서 합성되며, 나머지 20%는 음식을 통해 장(腸)에서 흡수된다. 콜레스테롤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estrogen)과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등의 호르몬과 소화액인 담즙의 재료이다. 특히 우리 몸의 60조 개 세포를 보호하는 주요 성분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모자라면 오히려 혈압과 수분 조절 이상, 소화 불량, 우울증, 그리고 심각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서 이를 운반할 단백질이 필요하며, 지방을 운반하는 단백질을 지단백질(脂蛋白質, Lipoprotein)이라 한다. 지단백질은 밀도와 크기에 따라 저밀도지단백질(LDL, Low Density Lipoprotein)과 고밀도지단백질(HDL, High Density Lipoprotein)로 나뉜다.

우리는 HDL-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른다. LDL 콜레스테롤 정보를 알리고 적절한 콜레스테롤 관리를 강조하고자 2005년에 매년 9월 4일을 '콜레스테롤의 날(Cholesterol Day)'로 제정했으며, 2020년 16회를 맞이했다.

중성지방(中性脂肪, Triglyceride)의 유해성(有害性)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중성지방이란 글리세롤 1분자와 지방산 3분자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지질의 한 종류이다. 중성지방은 음식물에 포함된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탄수화물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존재하면 LDL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상지질혈증(異常脂質血症, dyslipidemia)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에 이상지질혈증은 고지혈증(高脂血症, hyperlipidemia),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질(脂質) 성분이 혈관 내막에 쌓여 죽상

동맥경화증을 일으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15년에 발표한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국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1000만명에 이른다. 30세 이상 성인 남성 10명 중 5명, 여성은 10명 중 3명이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 콜레스테롤이 동맥 혈관 내막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사 3110명을 대상으로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혈압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혈압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H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은 그룹의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32%까지 줄었다.

일본에서 정상혈압인 중년 남성 1만 4215명을 대상으로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4년 동안 참가자들의 고혈압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222~369mg/dl)이 총콜레스테롤이 가장 낮은 그룹(167mg/dl 이하)보다 고혈압 발병률이 28% 높았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은 그룹(138~301mg/dl)의 고혈압 발병률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27% 높았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2011년 22만 9540명에서 2016년 262만1509명으로 5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특히 고혈압 환자 중 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인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비율은 71%에 이르며, 이는 정상 혈압을 가진 성인들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보다 2.1배 높다. 따라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상지질혈증의 유무는 혈청 지질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보통 공복 후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를 시행하여 진단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채취 전 10~12시간 동안 금식(禁食)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상 범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Total Cholesterol 200mg/dl 이하, LDL-Cholesterol 130mg/dl 이하, HDL-Cholesterol 40mg/dl 이상, 그리고 Triglyceride 150mg/dl 이하로 본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1% 높아지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2~3%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한국인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mg/dl 이상일 때 심혈관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과 혈압(血壓) 및 혈당(血糖)을 적절히 조절하면 사망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동물성 지방과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 주는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등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도록 한다. 빵, 국수 등 단순 당류 등 다량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과 알코올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므로 가급적 줄이고, 과일과 채소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주므로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여야 한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식품에는 기름류(버터, 마요네즈, 드레싱, 생크림 등), 어패류(오징어, 새우, 뱀장어, 문어 등), 육류(베이컨, 쇠간, 닭내장, 쇠똥통, 쇠곱 등), 난류(계란 노른자, 메추리알, 대구알, 청어알 등), 기타(카스텔라 등) 등이 있다. 한편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은 식품에는 기름류(옥수수기름, 콩기름, 참기름, 면실유 등), 어패류(도미, 게,

전갱이, 갈치, 대구, 전어, 가자미 등), 육류(삼코기, 닭가슴살 등), 기타(콩제품, 저지방 우유 등) 등이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치료가 필요하다. 혈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 위험인자이므로 금연하여야 하며, 잦은 음주는 이상지질혈증의 주요 원인이므로 술은 하루 2잔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운동은 건강관리에 중요하며,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고, 중성지방 수치는 낮다. 즉,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 내 지질 분해 효소가 활발해지면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면역력(NK세포 활성화)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1차 방어작용(선천면역)을 대표하는 면역세포다. 혈관이 깨끗해야 면역세포 이동이 원활해진다.

우리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강한 혈관 만들기' 5계명을 지켜야 한다. 혈관이 건강해야 장수(長壽)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한다. ▲절주(節酒)와 금연(禁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운동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이상지질혈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한다.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교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The Asian N·시사주간 논설위원, The Jesus Times 논설교문) <청송건강칼럼(762) 2020.9.9>

성경대로 사는 사람 1

행복이 축복이다 행복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하형록 목사
팀하스 회장

리가 역경에 놓인 순간 결정된다"라는 말대로라면, 나는 단연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장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당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이식받을 심장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나이와 무관하게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행복'임을 배웠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친구 사이에서 내가 가까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정은 무너져 내린다. 부부 관계에서 내가 가까이 배우자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주님

과의 관계에서 내가 전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처음 병원에 실려 갔을 때 행복은 내게 너무도 낯선 단어였다. 그것은 곧 '실패', '패배', 또는 '약함'을 의미했다. 내게 행복은 어떤 의미로운 결코 관련되고 싶지 않은 단어였다.

어린 시절, 나는 목회를 하였던 아버지를 따라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랐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박은 정말이지 너무 심각했다. 형님과 나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산다는 이

유로 날마다 동네 아이들의 조롱과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매일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갔다. 아이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기피하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포대의 한센병 환자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바로 나야. 나도 이런 병을 앓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게 내 길 어찌겠니. 그래서 그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리

고 이제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게 지내고 있어." 나는 되물었다.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세상이 따돌리는데 어떻게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던 말이야?" 그러자 그 아이는 다시 평온한 가운데 말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한센병 환자로 만드셔서 내가 주님께 쉽게 행복하도록 하셨어. 나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주님은 내가 그분께 행복하도록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야."

어리석게도 나는 심장을 이식받는 역경을 맞닥뜨릴 때까지 그 아이가 말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처음 심장에 이상이 있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주님께 행복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주치의가 "당신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때조차도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선택이나 치료방법을 찾아보라고 우겼다. 다른 그 어떤 선택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비로소 내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심장을 이식받는 것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울었다. 내가 찾고자 했던 모든 선택의 가능성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주님 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주님께 행복했다.

• 장한국의전협동조합에서
• 고품격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는 먼저
비용은 100% 후불로 정산

장례서비스카드
무료 발급

단순장례 : 1,200,000원
기초장례 : 2,100,000원
고급장례 : 2,900,000원

필요한 용품만 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합리적 장례
전문 장례지도사가 내 가족 내 형제 와 같 히 함께 합니다.

장례 의전의 전문화 장례 의전의 명품화 한국의전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이웃

VIP Premium CARD S/N: PCS-038373278

본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십니다.

※ 프리미엄서비스팀 10~50%까지 할인서비스

한국의전협동조합

VIP 선택형 장례서비스 상품

단순장례 : 1,200,000 / 기초장례 : 2,100,000 / 고급장례 : 2,900,000

"장례식 선택항목"

1. 유족상주 : 2002년 6. 유족상주비 : 2002년 6.
2. 제단장식 : 2002년 7. 조문객비 : 4002년
3. 묘자석비 : 2002년 8. 위문금비 : 3002년
4. 내장장비 : 2002년 9. 위문금비 : 3002년
5. 안치장비 : 2002년

무료 상담 전화 1644-2542 *당첨번호는 홈페이지에 안내

장례식 후유증 예방을 위한 사전장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상품검색 : NAVER 한국의전협동조합 확인

상품검색 : NAVER 밴드 한국의전협동조합 가입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Korea Culture Ceremony Cooperatives



상품가입 및 상담문의
장례행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전국대표번호 : 1644-2542

진리총회 대한노회 하계 교역자 수련회 가져

주제 : 하늘 보좌와 일곱 인 개봉 계시의 비밀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8월 17일(월)~19일(수) 오전까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운로, 가평 컨벤션리조트 세미나실에서 대한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2020년 하계 수련회가 열렸으며 “하늘 보좌와 일곱 인 개봉 계시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약 3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 강의를 지난 17일(월) 오후 7시 노회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개회 예배가 진행되어 김진환 목사가 기도들,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계시록 4:1~11절을 본

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곧이어 첫날 강의가 시작되어 “하늘 보좌와 일곱 인 개봉 계시의 비밀”에 대해 살펴했다. 이어 대한노회원 일동이 은혜로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후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 및 첫날 강의를 마쳤다.

18일(화) 하계 수련회는 오전 9시 장한국 목사의 인도로 이진영 목사가 기도들, 이어 목회현장에서의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에 첫 번째, 천성교회 박민규 목사, 둘째, 감사교회 김은임 목사, 셋째, 새에루살렘교회 김정미 목사, 넷째, 교정선교회 유순옥 목사, 다섯째, 김종현 목사 순으로 목회현장에서의 문제, 영적 생활의 문제, 성경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장한국 목사는 질의응답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발표했다.

둘째 날 저녁 특강에는 감사교회 김은임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이미경 목사가

기도한 후 남자 목회자들의 특송으로 은혜를 끼쳤으며 노회장 장한국 목사(진리총회장)는 계시록 5장 말씀을 주제로 “일곱 인 개봉의 비밀”에 대해 강론했다. 강사로 나선 장 목사는 마지막 때 목회자의 삶의 각오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열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모두가 도전을 받은 가운데 말씀에 심취한 모습들이었다.

특강 3일째인 19일(수) 오전 9시 새에루살렘교회 김정미 목사의 인도로 폐회 예배 및 특강이 진행되어 전상열 목사가 기도를,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계시록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대한노회 사모들의 특송을 가졌으며, 장한국 노회장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2020년 대한노회 하계 수련회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일곱인 개봉 계시의 비밀을 깨우치는 목회 사역에 새롭게 다짐하고, 특강을 통한 매시간 진리의 말씀에 만족함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감사의 박수로써 영광을 돌려드렸다. 아울러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교육부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하산했다.

한교연 9-5차 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대응방안 논의

대면, 비대면 예배” 용어 신학적 정리 필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대진 목사)은 지난 9월 1일(화)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9-5차 임원회를 열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조치 당한 교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이후 일부 교회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임원회는 이날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당국에 고발 조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갈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교연이 적극적인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에 의해 고발 조치되어 교회가 폐쇄된 운정침례교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연합회 등과 연

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일선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이 문제를 신학위원회에 맡겨 한국교회가 신학적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임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들이 방역 당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따라서 발열검사, 마스크쓰기, 출입기록부 작성, 성도 간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회원교단들이 산하 교회에 철저히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원들은 당국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교회들까지 일률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의 교

회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과, 비대면 예배시 방송 송출 인원은 20명까지 허용하면서 그보다 적은 수가 모이는 대면 예배는 금지하는 등 그 기준과 원칙이 서로 달라 일선 교회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만명을 수용하는 교회에도 똑같이 2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부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권대진 목사는 현 정부가 코로나 단속이 아닌 예배 단속으로 변질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임원들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방역을 방자해 예배 단속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임원회는 교회들마다 처지와 환경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라며 교회들이 보다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의 방식은 자율에 맡겨줄 것을 당국에 제차 요청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 사회복지사 배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사회복지사는 “면허증”과 자격증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



지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5월 16일 개강하여 8월 22일 종강 수업을 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을 찾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강의 더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약 30명의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이날 강의를 한 광동훈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두기 2단계로 서울 경기권의 학교와 대부분 학교들이 온라인과 사이버 강의 등으로 전환하여 강의하지만,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강조하며 지금의 교육을 아쉬워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광동훈 박사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30시간의 강의와 온라인 3회 이상 대면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습을 120시간 하는 문제점과 실습 또한 실습지 부족으로 120시간 중 80시간은 대면으로 40시간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과제물로 사회복지사를 배출한다고 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광동훈 교수는 “사회복지사 면허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책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사회복지사는 “면허증”과 자격증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2003년부터 실시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러 전문가라고 말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지금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면서 중추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급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하는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전문가로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일반 자격증 취득자(미용사, 조리사 등)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자격을 낮추는 행위로 사회복지사 시험은 “한국보건교인국가시험원”에서, 요양보호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험제도의 변화와 지금의 실습제도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만 되면 실습하는바 실습기관에서의 지도자들의 자질 부족과 기관에서의 배울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의 부족함이 있기에 학습자들이 바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에 현장에서 전문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도 지적하며, 비록 30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120시간의 실습을 충실히 한 초년생 예비 사회복지사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최고의 사회복지사들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강의를 이어간 윤정희 교수(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상담과 심리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종강 후 신입 사회복지사가 되면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에 있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 상담자로서 “공감하고 칭찬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09시부터 16시까지 이루어지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충청도 태안 경상도 창원 부산 등지에서 광동훈 교수와 윤정희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의”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실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ANC온누리교회 부설 인싱크대학

가을 온라인 학기 학생 모집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부설 인싱크대학에서는 가을 온라인 학기 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

인싱크대학은 팬데믹 상황 속에 가을학기 가주 정부의 공립학교 교육방식이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된 현 상황에서 이번 가을부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을 학기는 지난 3일(목) 개강해서 오는 12월 3일(목) 14주간 학사일정으로 진행되며, 한 학기 등록금은 1

인당 30달러이다.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입학등록은 10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수강생들은 스마트폰 또는 랩탑, 태블릿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한다. 등록 시 수업에 필요한 소정의 줌(zoom) 교육을 제공한다.

© 크리스천비전

학감 이진형 목사는 “인싱크 대학의 뜻은 NSEnC(Next Step Education in Christ College)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단계 교육을 의미한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온라인 수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시니어들은 인싱

크 대학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좋은 배움의 도구를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수강 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연장자)는 대한민국한다. 현재 120여 명이 등록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설 학과는 성경경 강해 △성경적 기도 △성지순례(온라인) △고려 수지침 △스마트폰 △생활영어 △미미 △건강댄스 △우쿨렐레 △키보드 △잔양울 등 등이 있다.

▶입학 문의: (213)568-5112 김민숙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 제105회 정기총회 개최

주제 :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 (고후 4:6절)

총 회 장	서 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 계	부회계	총 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열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유순옥 목사 (조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정요한 목사 (서울꿈의교회)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 시무)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계시록 9장 강해(54)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징조

(다음시간이어서)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본문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하고 읽을 때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면 불빛이 환하게 비치듯이 우리의 심령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넷째 천사의 나팔 다음에 순서상으로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쯤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을 때 전체조건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내용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성령으로 끄집어내어 활용 되어지고 조명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어느 때이고 내게 해당이 되는지 결정되어 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는 계11:1-14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순교당하는 기간은

계11:3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순교당 합니다. 1,260일은 삼 년 반입니다. 이는 두 증인의 예언이 첫 삼 년 반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삼일 반 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두 증인들의 시체에 들어가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에 의해 그들의 시체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계11:11-12).

혹자는 1,260일을 문자 그대로 삼 년 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상징적 해석으로 하여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킨다고도 말합니다. 또 계11:11 '사흘 반'을 삼 년 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견해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환란이 시작 되어서 1,260일, 즉 삼 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예언하고 1,260일이 끝날 때 순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 삼일 반 후에 두 증인들의 시체가 올라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삼일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반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삼일 반 후'는 전 삼 년 반이 지나고 후 삼 년 반이 시작 돼서 삼일 반 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심본의 일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고 남은 자들이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하고 말씀했습니다(계11:14).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와 첫째 화란?

그러므로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정확히 두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전 삼 년 반 때에 있게 될 자들인가요, 전 삼 년 반 되기 전, 즉 환란 전에 휴거 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후 삼 년 반 때에 있게 될 자들인가요? 교회 성도들은 7년 환란 중에 전 삼 년 반 동안 있었으면서 그 환란을 겪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 9:1-12까지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사건 계시인데 이 사건이 '첫째 화'라고 말씀했습니다(계 9:12).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는 전 삼 년 반인 1,260일 기간 중이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단 7:25까지 역어서 봐야 합니다. 단 7:25에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의 손에 지극히 높은 분의 성도들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붙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교회 성도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 고통, 환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을 뜻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한 때 두 때 반 때 중에 어디에 해당 되나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환란이 시작되어서 한 때(1년)와 두 때(2년)가 지나고 나머지 반 때(6개월)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깨닫고 믿어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면 그 다음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가?'하고 말입니다. 화는 환란보다 더 혹독한 징벌에 속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화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려하셨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 화는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가? 만일 육적인 성도들이 이 화를 받으면 모두 실족하고 말 것인데 이 화는 성도들을 고통 중에 쓰러져 죽고 멸망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이므로 육적이 고 세상적인 신자들이 종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하고 말씀했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목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하나님의 종인데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는 것을 가리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을 관장하는 열쇠를 받았으므로 그 천사는 곧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정도면 누구인가요? 바로 마귀입니다.

무저갱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은?

무저갱(無底坑)의 한문 뜻표를 하면 '바닥의 끝이 없는 굴',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으로서 지옥과 구별됩니다. 불행자를 주장하는 귀신들은 악한 영입니다. 불행자가 죽으면 그 악한 영들(귀신들)은 무저갱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아들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가 마귀에 속아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

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의 영은 음부로 갑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현재 지옥에 가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간증집회 때 "내가 지옥에 가 보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는 교회와 신자들이 믿음을 믿지 않고 감정과 체험, 신비스러운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사며니즘적 신앙입니다.

2절)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무저갱의 연기는 악령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악령이 올라오는 것이 연기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연기가 땅 위에 올라와서 메뚜기로 존재하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된 악한 영들을 전부 땅 위로 올라오게 하여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령으로 밝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메뚜기에 대해 계시해 놓은 성경말씀들이 순식간에 성령으로 조립되어져야 합니다. 욥 1:4 '모퉁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뱀이 먹었다.' 또 욥 1:6에 한 민족이 내 땅, 즉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짓밟았다고 말씀하였고, 욥 2:25에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악령)가 땅 위에 메뚜기가 된 것은 곧 '큰 군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어떻게 군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있는 악령이 올라와서 불행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즉 악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신을 도구로 사용하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황충이 군대의 왕은 계9:11에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은 '파괴자', '멸망의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순종하

며 일하는 자인가요? 그는 영적 존재인 마귀의 화신(化身)입니다. 화신(化身), 즉 '몸을 입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부리는 그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황충이가 큰 군대이고 그 군대의 대장이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는 마귀를 위해 일하는 자요, 또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3절)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황충이 군대는 땅의 전갈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갈에 쏘여본 경험이 없으므로 그 고통을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전갈을 치를 땀이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전갈에 쏘이면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살이 칼에 베이는 것 같은 심한 고통으로 인해 차라리 죽음을 구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죽음이 같은 신자들이 아닌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만 삼하게 하라고 하더라. 본문 4절 말씀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은혜 시대 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곧 '큰 군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앞서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에서 이미 깨달았듯이 이 황충이의 화는 1,260일 동안, 즉 한 때와 두 때가 지나고 나머지 반 때에 있게 될 화입니다. 이 화는 죽음이 같은 신자들, 세속적인 신자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사코너 278

내가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 총회장/CJTN tv 부이사장)

(요 15:26-27) 예수님이 보낸 '위로자가 오시면' 하시면 위로자에게 존경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위로자, 진리의 영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상고한바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다면 이를 잘 알 수 있으리라.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행2:33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의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순절에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수차례 약속하셨고, 이 아버지 약속대로 오순절명절에 성령 강림했습니다.

위로자, 즉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셨고, 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시적으로 함께 일했다가 떠나신 성령과는 달리 우리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으나 위로자 성령은 출생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유출되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 하시리라. 왜 위로자,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나요? 그분의 주된 일이 무엇일까요? 이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독생자의 속죄구원이 있었고,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도와 그의 구원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구원 안에 살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너희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으로 나를 증거 하리라.'하십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함이 언제를 말하는가? 이는 요1:1의 태초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낳으신 영원한중의 태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생명의 아들들로 낳으신바 됐습니다. 그래서 히2:11 거룩하게 하시는 분(독생 성자)과 거룩하게 된 자(생명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 영을 창조도 하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행1:8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위로자, 진리의 영이 주님과 처음부터 있었음을 깨우치고 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가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한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9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o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한동보수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교리 55-6)
☎(041)356-0644

통신 신학생 수시 모집
※ 명예박사 학위 안내 ※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불타는 사명은 있으나 여러 사유로 신학을 하지 못하신 분이나 중도에서 포기하고 계신 분에게 사명감당의 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사명자는 아무 조건 없이 수시 입학이 가능함.
* 개인별 이수과정으로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02) 849-9395
(총회기일 및 목사안수 상담)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전(주)주사랑)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10, 701호(배운동)
홈페이지 http://jj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16 |

여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5)

영의 양식인 말씀을 준비, 영의 양식인 약을 예비하라

(다음 시간 이어서)

그리고 합환채를 삶아 먹었다면 큰 일 난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 요셉이고, 또한 라헬은 거룩한 교회의 표상이 된다. 만일 그 합환채를 삶아 먹어야 한다면, 라헬보다, 선배인 사라가 삶아 먹어야 할 것이다.

사라가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 정육제를 사라가 삶아 먹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왜 라헬이 이것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가? 그러므로 그 합환채를 삶아 먹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라헬이 합환채를 삶아 먹고서 요셉을 낳았다고 하면, 요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육적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요셉의 사건을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아셨기에

그를 성대케 했다. 그래서 요셉을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육적인 것, 합환채를 먹은 것과는 전혀 상관 없이 없다.

합환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루우벤은 육적인 자식인데, 이 합환채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먹여서, 어머니가 정육이 왕성해 지면, 자기 어머니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 루우벤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에 그 비밀을 알게된 라헬이 합환채를 가로챘 것이다.

야곱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물쳐진 자이다. 야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물쳐진 자이다. 야곱은 성령으로 물쳐진 자이다. 그래서 야곱은 환난을 통과한 정상적인 모형이다. 우리는 바로 야곱의 표상이라 하겠다. 야곱은 공짜로 먹은 것이 한가지도 없다. 나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옷의 의미는 신앙을 가리킨다. 또한 옷은 믿음을 가리킨다.

또한 옷은 착한 행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마지막 때에 입을 의복을 준비해야 한다. 의복을 준비치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다.

마 22:12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나온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결과 손과 발이 묶이고 바깥 흑암에 던져짐을 당한다.

손과 발이 묶여서 흑암에 던져짐을 받으면서도 그는 한 마디도 말을 못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고 했다. 주께서 그에게 옷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준비치 못한 것은 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하여 옷 준비하라고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 준비를 못했다면 분명코 쫓겨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쫓겨나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온다. 마 22:12~14절까지 다 함께 읽겠다.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고 하시니라.」 아-멘

2) 여름엔 약을 준비하라

약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 준비를 해야 한다.

비료의 종류를 세가지로 말한다면 ① 인산과, ② 질소와, ③ 카린이 있다. 그런데 비료 중에서 인산은 뿌리에 영양을 주는 약이 되겠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 인산을 사용한다. 그리고 질소는 잎과 관계가 있다. 가지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카린을 사용한다. 카린은 결실을 맺을 때, 추수기에 주어야 한다. 이는 열매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인산과 질소는 많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카린은 못 준다고 했다. 카린은 먹을 자가 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있다는 말이다.

이해를 돕는다면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 않는다. 자주 권할 지라도 관심이 없다. 단단한 식물은 관심이 없다. 그저 젓만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저 젓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카린을 신자들이 먹어야 한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 대부분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에게 젓만 먹이고 있다.

그저 설교를 쉽게 듣기를 원한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정기남 목사
편집인

않으려고 한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래서 마 24:45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귀하고, 극히 적다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양식을 바로 먹이는 주의 종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양떼들을 위하여 말씀인 약을 잘 처방할 줄 아는 종이 적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양떼들에게 그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는 주의 종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아직도 100년 전의 20년 전의 메시지 방법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카린이 필요하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나갈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 영의 약식이 떨어질 때가 온다. 약이 떨어질 때가 온다.

다같이 「암 8:11=「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을 1:17~20=「씨(생명의 씨) 그들의 흙덩이 (육적인 삶) 아래서 썩었고, 창고(교회) 황량해졌으며, 공간(성도의 심령) 부서졌으니, 이는 곡식(말씀)이 시들었기 때문이다. 짐승들(예물, 사도급)이 어찌 신음하는지! 소떼(사명자, 집사급)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들에게 초장이 없음이라. 정녕, 양떼(성도)도 황폐해 되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는 불이 (진노, 심판) 광야의 초장들(말씀 약식)을 삼켰고, 화염이 들의 (세상) 모든 나무를 (교회 성도들) 태웠음이니이다. 들의(세상) 짐승들(에서와 같은 자)이 또한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는 강물들이(교회) 말랐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말씀, 양식)을 삼켰음이니이다.」 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6-**믿음의 영안으로 실상을 보라**
대화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잡초 같은 생각들을 제거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안위와 기쁨은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쉼을 얻으며 살았기에 그의 생애는 항상 역동적이었다.

시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다윗은 아골 골짜기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영혼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울 때도 다시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 '으로, 그 이름은 절대 주권자, 절대 권위자, 절대 능력자를 의미한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기가 천지간 만물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자 '요, 오직 홀로 계신 전능하신 자 '로서, 선과 전리와 사랑 자체를 가리킨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왕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던 시절을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와 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과 공의로우신 권위를 목자의 지팡이 '에, 하나님의 파워풀(Powerful)한 영권과 권능과 능

력을 양을 다스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험들을 물리치는 막대기 '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위로를 누리다고 말하고 있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주께서 항상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 그가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의 앞에서 그가 실패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보란 듯이 원수 앞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평생 쫓겨 다녔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만드셨으므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시 23: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주께서 항상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 그가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제 승리자로서의 다윗은 여호와와의 집에서 영원히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리니 그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윗의 시는 입술로만 찬사를 하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의 영안이라는 바탕과 경험 속에서 체험한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다.

다윗이 하나님과 이런 실존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실존적 의식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치 아니하리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8-11) 하나님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며 실존적 믿음 생활을 하였기에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합한자 '라는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성령님과 대화하라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 중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화를 하면 이것은 아마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영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은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은 성경에 기록된 자들만의 체험이요,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자신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사 41:10, 요 5:37-38)고 진한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의논하셨고(요 8:26-29, 눅 22:42), 그 외 수 많은 선지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視務牧師 서명범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향교회**

담임 김관초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17(신곡동)
H. 010-7788-0091 T.032-612-0190**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홍성준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담임 백경영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인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0-4320-1507**대한예수교 장로회 뽀엘중앙교회**

담임 이혜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이주홍 부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11: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가좌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를 능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주일 1시 30분
오후 2시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향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한국경목총회 총장
시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욱 목사

조에/생명실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CCC 3대 국제총재에 스티브 셀러스 수석부총재 선임



전세계 198개 국가에서 대학생선교를 기반으로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단체인 CCC(대학생선교회)의 제3대 국제총재로 스티브 셀러스(Steve Sellers) 현 수석 부총재가 선임됐다.

스티브 셀러스는 미국CCC 대표와 오세아니아 대륙대표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부터 국제CCC 수석부총재를 역임해왔으며 국제CCC 이사회에서 현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에 이어 제3대 총재로 선임됐다. 스티브 셀러스는 오는 10월부터 국제총재로서의 직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CCC는 1951년 빌 브라운 박사와 보넷 브라운 여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2001년 빌 브라운 박사에 이어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가 2대 총재를 맡아 사역을 해왔다.

새로운 총재 내정 소식을 전한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는 지난 3일 세계 2만 2천 여 명의 CCC 간사들에게 전한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는 “국제CCC 이사회가 차기 국제총재로 추천한 스티브 셀러스(Steve Sellers)가 국제총재직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이사회를 대표하여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브와 그의 아내 크리스티(Christy)에 대한 우리의 추천은 6개월 동안의 기도, 금식, 평가 그리고 토론의 결과”라며 “이사회는 우리 기관의 세계적인 필요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 후보자들을 검토했다. 모든 후보자들은 깊은 영적 성숙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모든 후보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겸손함과 기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스티브가 오늘의 현실을 직면하고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국제 지도력 팀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며 스티브 셀러스를 제3대 국제총재로 선임 과정을 밝혔다.

스티브 셀러스는 1976년부터 CCC간사로 헌신해왔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대학생이 되어서 바로 우리 사역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국제 부총재로 섬겨왔다.

미국 캠퍼스 책임자로, 2년 동안 캠퍼스 사역 국제 부대표로, 그리고 4년 동안 미국과 오세아니아 국제 부총재를 역임한 후 지난 2005년 이후 미국 사역 국가 대표로 섬겼다. 2018년부터는 국제 수석부총재로 사역해왔다.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는 “국제 총재 선발 과정 내내, 이사회는 국적과 인종 문제를 매우 조심해서 다루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하여 손을 잡고 협력할 때,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도-육성-파송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위임받은 지도자들의 결정을 이행하고, 모든 나라의 남녀가 더 폭넓은 협력을 창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성경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동에 맡겨주신 소명에 헌신하여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해야 한다.”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

을 때, 주님은 스티브를 추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약관화하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사역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그의 수십 년에 걸친 섬김을 통해 매우 특별하게 준비시키셨다. 우리 이사회는 이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는 “저는 이 선택을 열렬히 지지하며 가능한 모든 면에서 그를 돕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스티브와 저는 33년 동안 매우 친밀하게 동역해 왔다. 그는 매우 비범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는 깊은 감정이 담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성장한 것이 보인다. 그는 ‘괜찮’거나 ‘좋은’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탁월’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가 영적인 지도력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1월에 가졌던 국제CCC지도력팀(Global Executive Team) 모임에서 그는 우리가 어떤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를 하루와 만나질 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이끄는 것을 선택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지혜를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스티브가 잘 하는 또 다른 일은 그의 주변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저는 그가 자신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 않은 영역에서도 훌륭한 지도력이 일어나도록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는 “스티브 셀러스는 또한 국제지도력팀 지도자들, 대륙대표팀 지도자들, 미국지도력팀 지도자들 그리고 이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는 여러 대륙의 팀 지도자들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스티브는 몇 년 전 국제지도력팀의 일원으로 그들을 섬겼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CCC는 미국CCC에 이어 해외국가로 처음으로 1958년 김준곤 목사에게 의해 설립되었다. CCC는 “모든 곳에서 영적 운동들”(Movements Everywhere)를 모토로 사역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CCC라는 명칭 대신 CRU를 사용하고 있다.

한교연 성민원, 911 S&RT 수색구조단과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이동급식차량 쌀과 식료품 지원, 양양군 일대 침수 가구 복구에 나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강원도 양양지역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며 240가구가 침수되고 반파되는 등 강원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교연은 지난 9월 5일 군포제일교회에서 산하 단체인 사)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과 함께 태풍 피해 구호·복구 봉사활동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현지에서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할 911 S&RT 수색구조단(Search&Rescue Team)도 함께했다.

한교연 대표회장이자 성민원 이사장인 권태진牧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태풍과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건 최고의 복”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닿는 대로 협력하고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발대식에 성민원과 함께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 양양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파견되는 911 S&RT 수색구조단에 사랑의 이동급식차량과 식료품(쌀, 컵라면 1,000개) 등을 지원했다.

911 S&RT 수색구조단은 성민원 지원으로 강원 양양군에 캠프를 마련하고 양수기로 침수된 가구에 물을 펴내고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세울 예정이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도 펼치게 된다.

911 수색구조단은 1981년 발족 이후

국내의 재해 구호를 위한 활동은 물론 해외 16개국의 지진, 태풍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하며 전문적인 인명구조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1999년 인도 지진 구조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터키, 네팔, 멕시코 등 천재지변 현장에서 활동했다.

911 S&RT 수색구조단 이강우 단장은 “수색구조단원 20명이 각 지방에서 모여 복구 작업과 방역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성민원의 협력에 힘입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호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민원은 지난달 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의 수해복구를 위해 911 S&RT 수색구조단과 협약을 맺고 이동급식차량과 식료품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교연은 성민원과 함께 911 S&RT 수색구조단을 지원해 태풍과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사회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교연 산하 사)성민원은 199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 기관으로 설립돼 21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민원의 ‘사랑의 밥차’는 재난·구호 현장을 돕기 위한 이동급식 차량으로 2006년 포스코로부터 기증받아 2006년 강원도 인제의 수해 현장에서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에게 8천여 끼니를 지원했다.

또한 2007년 태안 유류피해 지역에서 2만여 끼니, 2011년 전북 정읍 수해현장에서 3백여 끼니,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1천여 끼니를 지원한 바 있다.



(새롭고 깊은 베드로서의 말씀이 해결책이다.)

人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장한국 목사著



주사랑교회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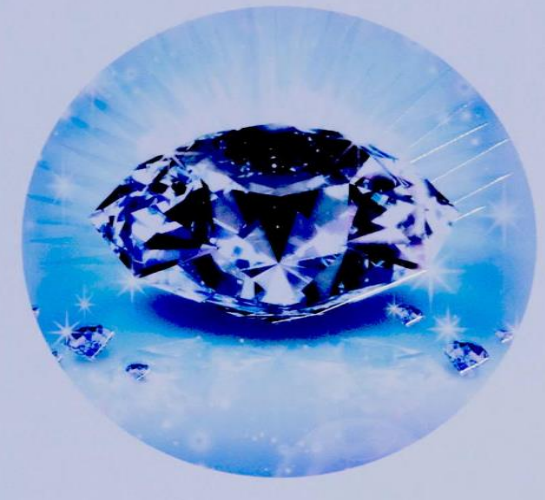
人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 재림 시 실족치 않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의 신부가 되는 비결은 곧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서 드러내는 참되고 신비한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 강해서의 필자인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사」의 저자 유세비우스(Cusebius Caesarea)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라고 요청했고, 네로 황제에 의해 자신의 요구대로 매달려 장엄히 처형되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여!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크신 고난을 받으셨고,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십자가에 똑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속하기 이를 데 없는 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너무도 과분하고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고백하며 최후의 생을 마친 것이지요.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으로 증거하는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그의 믿음과 똑같이 생생하게 살아 있고 역동적인 순교의 믿음을 갖게 하며 특히 주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본서는 오늘날과 같이 주 재림과 7년 대환난이 임박한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재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한 순교신앙에 오르게 될 것이며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받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적이든 충동적이든 실수 많은 어부 시몬을 주님은 제자로 불러 주셨고, 유대인과 거처 시몬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찌꺼기와 혼잡물을 완전히 빼내시어 충교에는 미리 주셨던 새 이름인 ‘베드로’에 온전히 합당한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를 금강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필자에게도 실제로 본서의 말씀과 똑같이 경험하고 연단을 거치게 하셨고 본서에서 증거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게 하셨음을 독자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동안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해 외 선교 때 목회자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증거해 오다가, 비로소 2018년에 주사랑교회 강단에서 강해식으로 날마다 증거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해서를 출간하기까지 주관하고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서선교의 귀한 은사를 받은 강화정 권사님이 오직 성령의 감화감동과 영감역사로 헌신하시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권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과 분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은 본서의 성경본문을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기준 하였습니다. 이는 헬라어 스테판 다수 필 원문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께서 새롭게 진리를 깨달으시며 크나큰 영적 은혜와 유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0년 8월 15일
저자 장한국 목사



人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가 25,000원
문의 : 010) 4436-7060
웹사이트 : www.jlcn.kr

<종교자유①> 헌법상 종교의 자유



정재곤

(전 중앙대교수, 한국교회법학회 사무총장)

본 자료는 2016.09.12에 발표된 ‘종교 자유정책연구원’ 스포츠선수 종교행위 허용 시민토론회 중 ‘정재곤(한국교회법학회 사무총장) 전 교수의 토론문을 발췌 편집하여 연재함을 밝힙니다.

1. 헌법상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에는 내면적인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적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에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을 자유, 믿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의 과도하고 집요한 전도가 일반 국민들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사회로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3대 종파 이외에도 많은 소수종교와 신흥종교 등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 속하는 국가, 또는 구 공산권 국가 중에는 명목상으로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뿐 주류 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오늘날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종교 자유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

(2) 종교자유 제한과 한계

종교적 신념과 신앙 양심이 사람의 내심에 마무르는 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

는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이 외부적인 행위로 표현될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고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게 된다. 가령 이슬람권에서는 교리상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이는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혼인법에 어긋나므로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종교적 양심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데, 주로 사이버 종교에서 벌어지는 성적 타락이나 한금강요, 또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의 수혈거부과 같은 편협하고 왜곡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 상식을 거부하는 행위로 조래되는 비극이 문제화된다.

□ 종교적 양심 또는 신앙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대한 경례를 우상 숭배로 보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기독교 평화주의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로 문제된다.

□ 종교행사 참여의 자유 : 예배의 자유

종교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므로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간섭해서는 안된다. 다만 종교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주술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배에 성적 모티브를 첨가하는 형태의 이단적 예배, 가령 통일교에서 하는 수천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형식의 종교행사는 과연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국가에 의한 예배 방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시험과 주일성수, 교도소 수감자(수감자의 종교행사 참여)와 군인과 같은 특수 조직 내에서의 예배보장이 문제된다. 다만 군대 내에서의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건국초기부터 군목(군종장교)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경우에는 국가는 예배방해죄(예배의 자유와 예배방해죄 : 설교를 금지당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의 예배방해, 교회를 일시 떠났다가 돌아온 건물주인의 예배방해)로 이를 처벌함으로써 교인들이 예배를 보장해야 할 의무

가 있다.

□ 선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와 위험지역]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선교와 의료봉사를 금지한 외교통상부조치가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적 조치가 아니라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8.6.26. 헌마1366 결정)

□ 종교적 표현, 비판의 자유 : 종교적 비판 자유의 보장과 명예훼손·모욕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표현(선전)할 권리, 다른 종교의 교리를 비판할 권리가 포함된다. 종교 비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신자들이 이단·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보장되는 자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비판이 자칫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사소송) 명예훼손죄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소송)할 수 있게 된다.

어느 한도 내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제재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담대하게 이단·사이비를 정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교적 비판은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 서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범,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한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따라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

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의 3가지 유형이 있다. 한편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연히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없다. 둘째, 사실의 적시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 즉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한다. 셋째, 비록 명예훼손행위가 있더라도 공공성과 진실성이 있으면 형사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공공의 이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옳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인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영역’인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한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① 비판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가 아니면 한정된 범위내인가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난

하는 전단지를 살포하였는지, 단순하고 공격적인 비난에 그치는가, 여러번 세미나를 가지면서 반박논리를 정립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와 한계: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교단 내부적으로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순수한 종교활동의 연장으로 운영되고 교육법 제81조상의 학교나 학원법상의 학원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종교교육의 자유에 속하는 단순한 종교내부의 활동으로서 국가의 제재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호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제공 : 한국기독교일보 윤광식 기자

“괜찮아요 함께 극복해요” 23일 온라인 코로나 블루 강연



강사: **안현미** 매니저,
한인가정상담소 샘 리 ASW
상담부 매니저



한인가정상담소(소장대행 캐서린 염)와 LA 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이 공동으로 주관한 ‘코로나 블루 강연회’가 오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인들의 급증하는 우울함과 절망감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마음건강 챙기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에 지

친 한인들이 온라인 강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공감하며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연회가 마련됐다고 주관처가 밝혔다.

강연 주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 챙기기’(강사: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매니저, LMFT), ‘It’s ok not to be ok’(강사: 한인가정상담소 샘 리 ASW)로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코로나 블루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진단하기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실제적인 방법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길.

이번 강연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1시간씩 진행되며, 당일 참가자 중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친목 혹은 종교 단체에 별도로 요청을 할 경우, 직접 심리상담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서포트 그룹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한인들의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 혼자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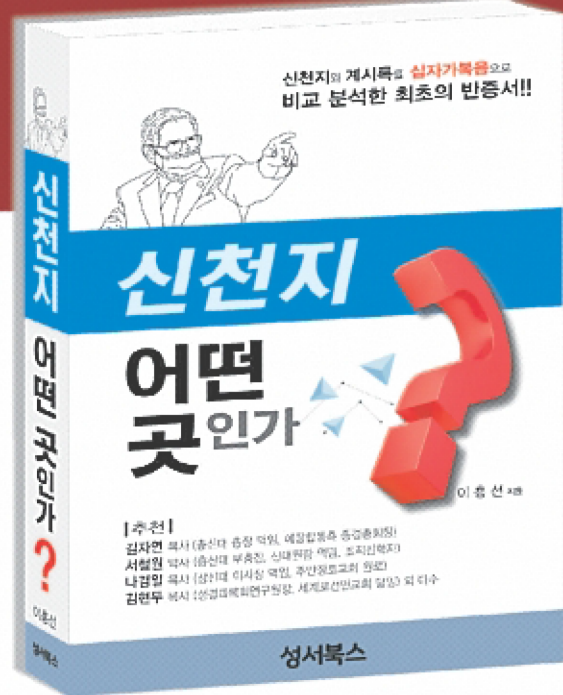
당해야 할 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핵심과제다. 코로나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강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상담부 매니저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인들이 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위로받고, 배우고, 평소 상담이나 정신건강에 궁금했던 점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소망을 전해주는 한인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연 신청은(<https://tinyurl.com/coronablue>)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세미나 줌 링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한인가정상담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KAFSCLA>)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천지 교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비교 분석한 한국교회 최초의 반증서!!

본서를 읽으면 성경의 맥이 정확히 읽혀집니다.



■ 성경과 신학의 기본 구조와 핵심을 명료하게 정리 ■ 신천지 주장의 계시록을 성경적 바른 해석으로 비교 변증

- ◆ 성경공부용으로도 적합한 종합 교재
- ◆ 계시록 전체 구조 알기 쉽게 정리
- ◆ 신천지의 포교방식과 대처방법
- ◆ 이교(異敎) 및 대표적 주요 이단 정리
- ◆ 건전한 정통교회와 이단 구별법 및 건전교단 목록 정리

이만희 교주의 잘못된 주장 반증과 윤리적 일탈까지 사진과 글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종합 비판서!

기획 : 한국개혁주의성경신학회
저자 : 이 흥 선 (홍신대 평생교육원(전야) 실천목회연구 교수)
정가 : 30,000원 (고급 양장본, 내용 올 칼러)
할인가 : 25,000원 (택배무료)
이 한 권의 책속에 복음의 핵심을 알기 쉽도록 함축 정리

◆ 최고의 신학자 및 이단연구가 감수 검증된 변증서 (다수 추천함)

“특별히 신천지와 계시록을 십자가 복음으로 비교 분석한 반증서여서 기대가 큼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교과서와 같은 등대와 같은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 읽으시기를 간절히 추천을 드립니다. (영성추천에게)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다. 계시록의 핵심진리인 복음으로 이만희 이단의 주장들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前 홍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신학대학원장 서철원 박사

복음의 핵심들을 단순히 명료하게 전개해 주며 평신도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 한권이면 기독교의 대강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전, 홍신대, 칼빈대 총장, 합동총회 총회장, 한기총 2회 대표회장 김자연 목사

특히, 십자가 복음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前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주안장로교회 원로 나경일 목사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참으로 올바른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진리를 사모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며, 이 책이 만민에게 읽히기를 소망한다.”

성경과 목회연구원장, 세계로선언교회(합동) 담임 김현우 목사

“앞서 나온 많은 책들과 함께, 아니 다른 신학적 접근과 더 발전된 논리로 신천지 대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이단연구가, 「교회와 신앙」 편집인, 빛과 소금교회(예장통합)담임 최상경 목사 외 추천

출판사 주문처 : 032)864-0474 (저자) 010-5525-8182
(농협) 351-0836-5315-93 (예금주: 성서북스) ※ 단체주문 상담환영
※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로 직접 주문하시면 더 저렴합니다

“배우 안소희 X 시타, 지파운데이션에 취약계층을 위한 시타 수분크림 후원”



지난 3일,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종관)이 배우 안소희와 기초 화장품 브랜드

배우 ‘안소희’는 시타와 함께 저소득층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타 수분크림 1,000개를 기부하였으며, 시타와의 후원 활동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시타 수분크림 1,000개를 추가 기부하였다. 이렇게 기부된 시타 수분크림 2,000개는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저소득층 미혼모 및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파운데이션 박종관 대표는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이 취약계층에게는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화장품을 기부해 주신 배우 안소희씨와 시타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배우 ‘안소희’는 지난 7월 유튜브를 개설한 후 활동 2주 만에 10만 구독자 수를 돌파하였고, 연예인 혹은 배우가 아닌 ‘인간 안소희’를 보여주며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파운데이션은 2016년 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제개발협력NGO이며, 국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독거노인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보건의료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권순철 변호사, 서울 동부법조타운에 SDG법률사무소 개업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지난 8월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로고스에 합류했던 권순철 변호사가 서울동부 법조타운에 SDG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SDG는 ‘오직 하나님께 영

광’(Soli Deo Gloria)이라는 의미다. 권 변호사는 영동지청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거쳐 부산지검 2차장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대검찰청 신우회 활동을 이끌었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재직할 때는 법조계 최초로 스포츠 관련 법률팀을 구성해 역력한 일을 겪고 있는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를 출석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스위스 제네바성서화운동 초대 대표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동부리더스조찬기도회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영동지청장으로 재직할 때는 ‘아버지학교’를 개강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권 변호사의

장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설립한 전용태 장로(세계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 춘천, 청주, 인천, 대구지검 검사장)이며, 처남은 판사 출신의 전문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이다.

*법무법인 SDG법률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218호 사건 수입 문의 전화: 02)6956-3996

코로나 기금 모금 온라인 갈라 성황리 마쳐

한인가정상담소 후원 및 현장 기부 경매로 약 13만 달러 모금 한인사회 주요 인사 및 기업인, 개인 후원자 150여 명 참여

한인가정상담소(소장대행 캐서린 엄)가 지난 10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7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에 약 15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호프 버추얼 갈라(Hope Virtual Gala)’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기부금 후원과 라이브 옥션 등을 통해 약 13만 달러를 모금,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코미디언 PK가 사회를 진행한 가운데 헬렌 홍, 신애라, 가수 브라이언, 메튜 모이 등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 특히 가수 알리와 제임스 리가 자신들이 만든 노래

영상을 보내와 함께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캐서린 엄 소장대행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7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사회와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기금 조성으로 주거비 지원 및 필수품 구입비용 등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연례 기금 모금 행사는 리

더십 스폰서(\$10,000)로 블루윌드, 한미은행,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수잔 정 박사, 커뮤니티 스폰서(\$5,000)로 시더스 사이나이, 오픈뱅크, 아시아아메리칸 정의진흥회, J&C Associates, The Chung & Soon Pak Family Foundation, Capital Group, 유진 김 성형외과, 파트너십 스폰서(\$3,000)로 CBB은행, City National Bank, Emperor's College, Terrakan, Henry Hosung Byun, CFP, LimNexus, 차탈리우드병원, Crowe 등이 후원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주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신 목사입니다.”



소강석 목사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종, 목사입니다.

누가 아무리 저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저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목회자가 서로 공격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러나 목사도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가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가 사회를 공격하고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야만의 시대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저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겠다고 생각을 해 본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다닌 후에도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행복감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어찌하여 목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던 말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

어버리고 말았던 말입니까? 휘

팡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또 밟혀 누더기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게 목사라는 이름을 다시 돌려 입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왜냐면 주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목사라는 직분을 버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불러주셔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키며 세우는 목사가 되게 하시기에 저는 이 이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소

나는 집에서 쫓겨나며 흘렸던 그때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간다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그 차가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쫓김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선지동산의 문을 두드렸고 온갖 모진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고학을 하며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직 주님, 오직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행복감에 젖어 주님을 태우는 군마가 되어 말갈기를 휘날리며 거친 광야를 달리고 삭막한 황야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

몰아치는 잔인한 폭거와 비난의 화살 앞에 오늘날과 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며 흘렸던 그때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해 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훼손당하는 현실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울다가, 다시 생각해 보며 이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세우신 당신의 종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명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이름을 제가 어찌 부끄럽다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사회가 섰다 운 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잔인한 말들과 야만의 폭거가 소용돌이치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목사의 말과 순명을 지키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니, 목사라는 이름이 다시 송고하고 교회가 존엄하고 거룩하다 불릴 날을 위하여, 저의 마지막 땀과 눈물과 혼을 바칠 것입니다.



GENERAL TRIAS
COLLEGE OF CAVITE

■ 입학안내 및 공동학위프로그램 안내

GTCC(카비테 트리아스대학) Class (Theology) in Seoul Korea는 필리핀 소재 대학으로 신학대학, 사범대학, 행정경영대학(시립) 과정과 초,중,고(국립)과정을 방송통신학교 과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에서 임명된 교수의 개인지도 및 학습을 본교에서는 인정하여 졸업 및 학위를 수여 합니다.

GTCC Class of Korea in Seoul

Yeonghwassa-ro 3-gil, Gwangjin-gu, Seoul, Korea

입학안내 : 010-7580-1004

■ 모집학과

초등부,중등부,고등부, 대학(학사), 대학원(석사,박사) 본교 사이트(www.gtcc.edu.pu)에서 확인 후 가능합니다.

(대학은 신학, K뷰티, 복지상담 등)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본 교수진은 카비테 트리아스대학(GTCC)에서 임명한 교수입니다.

1, 대학교수 : 광동훈교수,정기남교수.....

2, 초, 중, 고 선생 : 송경화선생.....

■ 특징 : 국내에서 초,중,고 졸업 및 대학의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 수업방법 : 온라인 수업은 본교 홈페이지(www.gtcc.edu.pu)에서만 가능.

※ 모든 수업은 본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GTCC Class of Korea in Seoul**

교수와 선생님들은 학습에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 및 선생님과 상담후 연락바랍니다.)

지역 학습관은 GTCC 입학생과 재학생들을 위하여 GTCC 지역학습관 교수들이 학습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학교의 모든 입학 및 재학 졸업 기타의 서류 발급은 필리핀 본교에 서만 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retree Presbyterian Church

2020년 표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요 20:21)

2020년 VISION
광주에서 전 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목사
허창범

부 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안중기,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은퇴장로: 공재룡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1부 1:3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5:00
금요철야: 저녁 8:00

광주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예마을 2차 후문 앞 수완 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바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푸른솔협동조합(상당밀 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20 번성표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예/배/시/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jk28638@hanmail.net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라

세계성경장로교회 주일 영상 예배



▲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 오늘날 교회들도 예외가 아닌 작금의 현실 속에서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는 지난 6일(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다.

찬양과 신앙고백을 한 후 담임 강신권 목사는 '문안 하노라'(약 1:1, 2:26)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 목사는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선교 지향적인 강해설교로 하고자 한다.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를 나눠 본다면, 1장은 1절-27절, 2장은 1절-26절, 3장은 1절-18절, 4장은 1절-17절, 5장은 1절-20절 총 108절이 된다.

오늘의 주제인 '문안 하노라'는 헬라어로 카이레인(χαίρειν)이다. 이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야고보서 전체의 시리즈의 주제가 문안 하노라이다. 그리고 2장 26절이 야고보

서 전체의 주제요, 동시에 구약에 있는 하박국에 대한 신약의 주석이다. 이것이 통해야 다른 복음서가 이해가 될 수 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꿔 말하면 참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인은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또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야고보는 자신의 형을 형이라 부르지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때는 단지 형님인 줄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자신의 형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 전체 역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 가장 큰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곁에 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내 곁에 있어, 나의 가장 중요한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까운 곁에 있듯이, 나에게 가장 신약적인 아버지가 주의 몸 된 교회 목회자로서 내 곁에 있듯이... 바로 형님이 메시아였는데 오늘 야고보는 부활할 때까지 그 사실을 잘 몰랐다.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던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행 1:14).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 후에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야고보서에서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신약에서 구약을 같이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를 반드시 숙지해야만 한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하라'(레위기 19:18). 야고보서 2장 11절에 '간음하지 말라'(출 20:14, 신 5:18), 야고보서 2장 11절 '살인하지 말라'(출 20:13, 신 5:17),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창 15:6).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잠언 3:34). 이와 같이 야고보는 끝없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도 삶이 뒷받침되는 실천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인가? 교회탄압인가” 주제로 기자회견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평신도위원회(위원장 이강욱 장로)는 지난 9일(수)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코로나 방역인가? 한국교회 탄압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에 대면 예배 금지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교연 평신도위원장 이강욱 장로, 한교연 공동회장 심영식 장로, 상임위원장 김형원 장로, 평신도위원회 총무 이영한 장로 등이 참석했다.

한교연 평신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교회 52개 교단과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 산하 '평신도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한국교회를 지목하면서 비난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의 1차 책임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회를 '양몰이' 대상으로 삼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매주일 한국교회가 드리는 공예배에서 스스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억압으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정부가 모든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기독교의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이다. 그 어떤 국가권력이라도 교회의 예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교회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한국교회가 공권력에 타협, 굴복하지 않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6만 3천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요청드린다. 공권력에

의해 공예배가 방해받고 탄압당하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기 바란다. 이 무거운 시련 앞에서 흔들리는 교회와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나아갈 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며 "우리는 국가와 교회가 직면한 이 엄청난 시련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겸손한 신앙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면예배 금지조치 해제 촉구

한국교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억압으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정부가 모든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대면예배의 금지조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기독교의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이다. 그 어떤 국가권력이라도 교회의 예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교회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공권력에 타협, 굴복하지 않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명서 전문>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팬데믹(Pandemic)현상으로 온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생활과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있다.

한국교회 52개 교단과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 산하 '평신도위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코로나19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먼저 코로나19로 시련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한국교회를 지목하면서 비난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의 1차 책임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회를 '양몰이' 대상으로 삼는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리에 어긋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명백히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제화, 성평등을 지향하는 젠더 정책에 기반하여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의 심장이다. 우리는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음란과 패역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낼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 패륜적인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매 주일 한국교회가 드리는 공예배에서 스스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 우리는 국가와 교회가 직면한 이 엄청난 시련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겸손한 신앙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9월 9일

한국교회연합 공동회장 심영식 장로
한국교회연합 평신도위원장 이강욱 장로
평신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형원 장로
평신도위원회 총무 이영한 장로

추석맛이 ‘사회적경제 제품’ 비대면 판촉

우체국 온라인 프로모션, 공공기관 온라인 박람회 등 비대면 판촉전-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오는 10월 4일까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비대면 판촉 활동

및 지원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촉 활동은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진행된다.

도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 비용과 판매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충청지방우정청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우체국 쇼핑몰에 상품 이미지 등 온라인콘텐츠와 상품 설명서를 무상으로 제작·지원하며 우체국 쇼핑몰에 전용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제품은 1만 원대 약과 세트부터 10만 원대 홍삼가공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추석명절에 단골 메뉴인

과일, 한과 상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이와 별개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온라인 박람회'를 열고 일대일 비대면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에는 도와 출자·출연기관,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 30여곳이 참여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만한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도청 직원 등이 앞장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며 "여러 홍보·판촉 행사를 통해 업체들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http://www.mokpojuan.com 멀티사이트 교회 MultiSite Church The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상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8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892
용화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상암빌딩 301호 전화/061-277-0891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2020년 2인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경이 이끄시는 교회 성경이 일하시는 교회

담임목사 이 요셉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일) 오전 7시30분 찬양예배(일) 저녁 7시30분 금요철야예배(금) 저녁9시 오후 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30분

주일 3부예배(일) 오전 11시 삼일밤예배(수) 저녁 7시30분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연산동) 전화 / 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00번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 한국교회 총력 제2회 기도회 개최, 기독교 국회의원들 협력 약속



한국교회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힘을 모은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김태영, 문수석, 류정호)는 지난 8월 12일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폐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기도회이며, 앞으로 저지가 이뤄질 때까지 매달 기도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배후에 기독교의 무력화 적대화 전략 있어”

이날 설교를 전한 예정통합 총회장 김태영牧사는 먼저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맞서는 기독교의 상황을 전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는 외딴섬처럼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한다. 타 종교는 찬성 내지는 유보적 입장이며 언론은 ‘팩트 체크’라 하면서도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기독교를 ‘수구꼴통’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극소수의 단체가 입법을 찬성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결코 우리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김 목사는 “만인은 평등하며 인권을 천부적 권리이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퀴어 축제 참여자’라고 하여 인신 구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지였던 이태원 클럽에서도 보았듯이 동성애자들이 도리어 과보호를 받았지 차별이나 처벌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번에 발의된 포차금법은 ‘동성애 보호법’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요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력화, 적대시하려는 전략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가 결코 진보와 보수 등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 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은 진영 논리에 따른 진보나 보수냐의 문제도 아니다. 교회 문제만도 아니며,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도회 조직 갖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기도회’ 선언문을 통해 전 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진리를 바로 잡을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평등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와 교회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 지역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단체는 이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철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결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법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폐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전국 교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혼란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조직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폐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하고, 범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활동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은 뜻으로 협력하

고 존중하며 활동한다 등을 결의했다.

경과보고 및 기도회 전국화 방안 등에 대해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공교회 중심이란 교단과 전국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고,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국적 기도회를 조직하고, 추진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고, 주요 교단들이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제1단계로 교회가 위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교회에서 월례 주관기도회를 개최하고,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도회 조직을 갖춰 기도회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교회들도 매월 둘째 주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회 또는 수요일기도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폐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한다.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제2단계로서 연합기관과 교단 및 전국 교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폐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을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뒤 찬반 여부와 입장을 확인해 의견 표명을 거부하거나 법안에 지지할 경우 지역 의원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1~2단계 활동에도 국회 각 정당과 법사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와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거나 본회의 상정이 거론될 경우, 제3단계로서 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도 권역별 중심지에서 대규모 기도회, 모든 교단과 전국 교회를 동원해 서울에서 초대형 기도회 등을 개최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소수 인권 보호가 다수 인권 해쳐선 안돼”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도 연사로 나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먼저 한국교회연합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는 도덕적·인륜적 악법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 한국교회연합은 차별금지법 저지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

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소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을 해쳐선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동성애 등의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구하기 위함”이라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행복과 나라를 위해,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는 “우리가 열심히 반대운동을 하고 전국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이고, 법 제정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는 결정적 시간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반대할 수 있도록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의원들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의원들 “여·야 떠나, 한 마음으로 저지”

여·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은 “하나님께서 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기독교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울산남갑)은 “이 법은 여야 정쟁의 산물이 돼서도,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도 안 된다”며 “어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 있는 세상을 원하겠는가? 이제 법 만능의 시대는 지나가

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서 더 이상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기독교 의원들과 하나되어 정성을 다해 설득하고 저지하는 일에 힘껏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도 “국회에서 많은 교육과 공감대를 형성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교계 지도자님들과 연합해 기도하면서 최대한 차별금지법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많이 부족하니, 오늘 모인 목사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몰라서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고,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집행위원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최근 시대적 가치와 정신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리더십을 세우지 못해 표류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마침 한교총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분들이 공적 사역에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세우게 돼 얼마나 다행이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펼쳤다.

제3회 한국교회 기도회는 오는 9월 16일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교회(담임 장봉생 목사)에서 예정합동축(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주관으로 열린다.



축 예정합동(보수) 제105회 정기총회 공고

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4:2-5)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목회대학원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칠 목사 천복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정호석 목사 사랑의교회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종록 목사 안약교회	강치현 목사 밀알교회	김주현 목사 발레리아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교회

총회 안내
일시: 추후연락
장소: 추후연락

본 합동보수 교단은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영혼구원을 위한 뜻 있는 목회자, 교단,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사단법인 예정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